

1월의 기도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누가복음 19장 38절>

1. 2019년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우셨음을 감사드립니다. 2020년 새해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꿈과 소망을 품고 나아가며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돌아오도록 하여 주옵소서.
2. 오는 2020년 경자년에도 계속해서 DCEM총재 조용기 목사님의 해외 성회 준비 가운데 DCEM과 모든 준비 기관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의 영을 부으사, 각자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3.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님의 해외 성회와 DCEM의 선교사역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4.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삼1:2)'는 말씀처럼 DCEM총재 조용기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기쁨 부으심이 충만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5. 한반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뜻 가운데 복음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또한,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테러, 가난과 질병, 지진의 피해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사단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6.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 아멘 -

지난 한 달 동안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DCEM을 잊지 않고 순복음동경교회, 시가끼 시계마사목사님, 순복음신안산교회(최용우목사)에서 후원해주셨습니다.

김정환, 순복음정릉교회(조종숙목사), 이태원내과의원, 정경자, 최인철, 함석숙 그리고 무명으로 후원해주신 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온라인 후원을 위한 계좌안내 :
계좌번호 181-22-02127-7 (KEB하나은행)
예금주 : 디시이엠

조용기 목사 특별 메시지

좋은신 하나님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유대인을 숨겨줘 나치수용소에 수감되었다가 극적으로 살아남은 믿음의 영웅 코리 텐 봄 여사는 “기차가 캄캄한 터널 속으로 들어갔다고 해서 기차표를 찢어버리거나 기차에서 뛰어내리면 안 된다. 조용히 앉아 기관사를 믿고 기다리면 잠시 후 밖으로 나가 밝은 세상을 볼 수 있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삶의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 두렵다고 포기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곧 어두운 터널이 끝나고 밝은 세상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다리는 동안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에 엄청나게 신앙이 좋은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욥입니다. 욥은 어떠한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믿음을 확신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마귀는 욥이 고통 당하면 하나님 버리고 떠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욥이 마귀에게 마음껏 희롱을 당하도록 하나님이 손을 뺐습니다. 그는 자식들을 다 잃어버리고, 있는 재산 다 상실하고, 가정과 부부가 낭패를 당하고, 전신이 병들고, 고통 당해도 욥이 말하기를 “주신이도 하나님이시요 가지고 간 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소서”라고 고백했습니다. 마귀의 체면은 목사밭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고, 하나님은 처음에 주신 축복보다 더 넘치는 축복을 욥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나에게 당장 지금 선한 것을 주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고, 좋은 하나님이시므로 결과가 좋게 된다고 믿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련을 많이 겪을수록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인 것을 더 체험하게 되고, 좋은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신 것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바라봄, 긍정적인 믿음, 긍정적인 입술의 고백을 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믿음과 바라봄, 고백을 계속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승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DCEM 뉴스레터 구독신청 안내

DCEM에서는 조용기 목사님의 국내외 선교사역을 보다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매월 정기 간행물 '뉴스레터(DCEM NewsLetter)'를 제작해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DCEM을 위하여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기 원하시는 분 또는 정기간행물을 무료로 받아보시기를 원하시는 분께서는 저희 DCEM에 연락주시면 조용기 목사님의 국내외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뉴스레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TEL : (02) 6181-5064 / dcem@davidcho.com



December News Letter

David Cho Evangelistic Mission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초청 순복음동경교회 축복성회

“기도와 성령 충만으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



다”고 말했다.

성도들의 ‘할렐루야’와 뜨거운 박수 속에 등단한 조용기 목사는 ‘두려움을 이기는 길’(시 27:1-6)을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조용기 목사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조상도 고향을 떠나 새로운 환경을 바라볼 때 마음속에 의심 불안 초조가 밀려왔다. 베드로도 믿음으로 물위를 걸어가지만 거센 파도와 풍랑을 바라보자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고 물에 빠지고 말았다”며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용기 목사는 “고난과 어려움에 처할 때 하나님의 말씀만이 힘과 용기를 우리에게 준다”고 강조하고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는 성도들이 될 것”을 당부했다.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초청 순복음동경교회 축복성회가 지난달 11월 20일 순복음동경교회 대성전에서 개최됐다. 이날 성회는 평일 낮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과 일본 일천만복음화를 소망하는 성도들과 순복음의 선교사 및 일본 목회자들이 함께해 뜨겁게 진행됐다.

DCEM이 주관하고 순복음동경교회가 주최한 성회는 연합성가대의 찬양 후 순복음동경교회 담임 시가끼 시계마사 목사가 조용기 목사를 환영했다. 시가끼 시계마사 목사는 “하나님이 조용기 목사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올해 대만 태국 성회에 이어 일본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어 감사하다”며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란다”

조용기 목사는 또 예레미야 33장 3절을 인용하며 기도와 성령 충만을 통해 두려움과 의심을 이기라고 강조했다. 조용기 목사는 “성

경에는 절대 거짓이 없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일을 예비해 놓으셨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전하며, 따라서 “담대한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실패가 승리로, 불행이 행복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이라고 설교했다.

1976년 일본일천만구원운동을 시작한 조용기 목사의 헌신과 노력으로 순복음동경교회를 모태로 동경지방회 동북지방회 관동지방회 관서지방회 등을 비롯해 일본 전역에 8개의 지방회와 80여 개의 교회가 세워져 오중복음 삼중축복 4차원의 영성으로 일본 복음화를 위해 헌신하고 있다.

순복음동경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충만한 교회, 사랑을 실천한 교회’라는 비전 아래 샛포로 성전을 비롯한 8개의 지성전을 두고 있으며 이날 일본 전역에 100개 지교회 창립을 선포했다. DCEM 사무총장이자 순복음동경교회 담임 목사인 시가끼 시계마사 목사는 샛포로에 신학교를 세워 2년 후에는 이들을 파송하여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완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가슴에 절망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 절망을 극복하고 가슴속에 찬란한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희망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현재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행복을 건설할 수 있는 것은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희망을 잃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현재의 고통과 상관없이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1. 희망이 없는 인생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희망을 잃어버리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희망이 있을 때는 살아갈 수가 있는데 희망이 없으면 기운이 다 빠져버리고 살아갈 용기와 힘도 잃어버리고 결국 인생을 포기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치고 인생을 포기 안 하는 사람을 못 봤습니다. 술을 퍼먹든지 그냥 방종하든지 될 대로 되라고 인생을 포기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식물인간처럼 되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하늘만 뻗어 쳐다보고 있고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는 것입니다.

또,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은 우울증의 노예가 되어서 마음의 즐거움이 없고 누가 와서 무슨 말을 해도 대꾸를 하지 않고 완전히 고독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즐거운 마음은 좋은 약과 같아서 심신을 치료합니다. 그러나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해서 사람이 건강하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귀와 영화, 공명과 쾌락을 다 가지고 있어도 삶의 희망을 잃어버리면 그 마음은 공허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잃어버리면 살아갈 용기를 상실하고 인생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2. 우리에게서 희망이 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나에게 희망이 있는가

“내가 야훼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어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므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다 이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시편 16편 8~11절)

창조하실 때, 사람을 절망적인 존재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물을 다스리는 왕 같은 존재요, 희망적인 존재로 지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타락해서 버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여러분과 나는 어떤 환경에 처해도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시편 16편 8절로 9절에 “내가 야훼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어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므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다 이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알면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도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므로 우리는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시편 103편 3절로 5절에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오종복음과 삼중축복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 찢고 피 흘려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오종복음과 삼중축복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라고 말합니다. 고난이 있으면 위로는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으면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서 우리에게 위로를 해 주시므로 이긴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희망을 가지는 것은 천국의 약속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서 천국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잠시 잠깐이요, 영원히 살 천국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약속 되어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좋을 때도 우리와 같이 계시고 어려울 때도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절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3. 희망을 생각하고 꿈꾸고 믿고 말하라

셋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희망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희망을 생각하고 꿈꾸고 믿고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 희망을 생각하십시오. 희망이 없으면 사람은 죽습니다. 한 국가와 민족이 흥할 것이냐, 망할 것이냐? 하는 것은 국민들이 그 마음속에 희망찬 꿈을 가지고 있느냐 혹은 없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희망찬 꿈을 가지고 있는 백성은 흥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희망을 생각하고 희망을 꿈꾸고 믿고 말하십시오.

아무리 큰 어려움이 다가와도 여러분의 생각과 꿈과 믿음과 말로써 환경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라도, 여러분은 그 속에 들어가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축복이 다가온다. 십자가의 오종복음과 삼중축복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생각대로 축복이 오는 것을 꿈꾸며 꿈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입술의 말로 고백하면 여러분이 여러분 운명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하루에 한 번씩은 꼭 꿈을 적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꿈과 용기와 희망을 주는 당사자가 내 자신에 대해서 매일 적습니다. 왜냐하면 과거를 돌아볼 때, 내가 과거에 가슴속에 그려놓고 매일 적고 바라보는 것이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 가슴에 그려놓고 바라보고 늘 적는 그 그림이 내일의 나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90이 되어도 지금같이 활달하게 산다. 그렇게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면 이상적인 자기 미래를 꿈 꿀 수가 있습니다. 최고의 이상적인 자기를 마음에 꿈꾸는 사람은 반드시 최고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성령님이 우리의 보혜사가 되셔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를 감싸고 있으므로 희망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잘 살 수 있습니다. 병 고침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희망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가슴속에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순복음동경교회 일본 일천만구령위해 100개 지교회 비전 품어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적극적, 긍정적, 창조적 고백이 하나님의 기적 불러온다”



DCEM 총재 조용기 목사가 순복음동경교회 축복성회 주강사로 초청되어 지난달 11월 20일 순복음동경교회 대성전에서 말씀을 전하였다.



자리가 기적의 시간 축복의 시간 신유의 시간이 되어 일본 일천만 복음화를 위한 초석이 되길 바란다”며 참석자들을 축복했다.



설교 후에는 예수님의 사역 중 3분의 2가 아픈 사람을 고치신 사역이었음을 강조하며 예수 이름으로 환자를 위해 담대하게 신유기도 했다. 이어 시가끼 시게마사 목사의 인도로 ‘하나님의 은혜’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를 찬양하며 전 성도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일본일천만구령을 위해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오가와 츠구미치 목사(야마토 갈보리 체플)는 “오랜 기간 조용기 목사님과 함께 일본복음화를 위해 헌신했다. 일본을 위해 더

욱 기도해 달라”고 말했다. 야마다 사유리 집사는 “마음에 걱정 근심이 있더라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라는 말씀에 큰 위로와 용기를 얻었다”며 감사를 전했다. 이날 성회에는 우리 교회 장로회 부회장 김종복 장로가 함께했다.

Merry Christmas
기쁜 성탄을 맞이하여 2019년 한 해도 저희 DCEM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된 성탄을 보내시고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바라며 주 안에서 승리의 기쁨이 항상 넘쳐나시기를 기도합니다.
總裁 조용기 목사 趙 錫 基
事務總長 시가끼 시게마사 목사 S. Sui Gdu